

한국의 민속적 자연관과 환경문제의 갈등
— 위도 띠벳놀이와 “핵폐기물 처분장”문제의 친화와 상극 —

우다가와 아스카 (게이오 대학교 박사과정)

1. 들어가는 말 : 연구의 문제의식 및 필요성

민속학은 인간과 자연을 어떻게 생각해 왔을 것인가. 본고의 대상인 위도는 영광굴비의 이름으로 유명한 조기의 바다로서, 또 중요무형문화재 위도띠벳놀이로 유명한 섬이다. 이 위도에서 2003년 핵폐기물 처분장을 유치해 건설할 계획이 부상했다. 섬 사람들은 찬성했지만, 부안군 룻지사람들의 강한 반대가 있어, 자주 투표가 실시되어 결과적으로는 백지화 되었다.¹ 부안군민의 자주 투표에 의해서 핵폐기물 처분장을 내쫓은 것은 민주주의의 승리라고 보도 되었다. 또, 핵폐기물 처분장의 유치에 찬성한 위도 사람들은, 자연을 돈으로 팔려고 했다고 비난을 뒤집어 썼다.

연구자는 위도의 민속문화를 조사한 과정에서 하나의 의문을 느꼈다. 왜 위도 사람들은 핵폐기장 건설에 찬성했는가. 그것을 보상금의 문제만으로 생각해 둘 것일까. 원래 사회에 따라서 자연 환경에 대한 생각은 다른 것이 아닌가.

민속학은 지금까지 인간과 자연의 관계성, 자연관을 어떻게 주제화해 왔을 것인가. 부안 반핵 운동의 팸플렛에는 위도띠벳놀이의 사진이 있다. 이 사진을 보는 우리는 “이 민속적 축제를 실시하는 현지 사람들이 핵폐기장 건설에 반대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많은 위도 사람들이 찬성파였다.

즉, 민속적인 것은 자연 보호적이라고 하는 언설이 사회에 넓게 침투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에 대하고, 민속학자는 이제야말로, 민속과 자연에 대해 고찰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한국에 있어 자연관의 연구가 전혀 없었던 것이 아니다. 그러나 이것들은 지역성이나 역사성을 고려하지 않는 연구가 많아, 「전통적」이라고 하는 문맥을 전제로 말해지는 것이 적지 않았다. 연구자는 이 「전통적 자연관」이 실제, 현지 사회에 있어 타당성을 가지는지 의문시하고 있다. 또 어떻게 해서 「전통적 자연관」 되는 것이 이끌리는지도 애매하고 의심스럽다. 예를 들어, 「한국인의 전통적 자연관의 현대적 의의」²라는 문헌이 있어, 한국인의 자연관을 말하고 있다. 그 논지는 명확하다. 민속 종교(민간 신앙)나 민속적 관습안에 「사람과 자연의 조화, 공생」 「자연 보호」의 사상을 볼 수 있어 그것들이 한국의 「전통적 자연관」이라고 하는 것이다. 그리고 현대의 자연 파괴의 흐름에 경종을 울리고 있는 것이다. 민속 종교나 민속적 관습에 자연 보호의 사상을 보려고 하는 논의 전개는 학문에 있어도, 환경 운동등의 실제의 운동에 대해서도 이용된다.

¹고길설 2004 「부안 끝나지 않은 노래」 앨피.

²진교훈 (秦教勳) 1998 「제 8 장 한국인의 전통적 자연관의 현대적 의의」 『환경윤리 동서양의 자연보전과 생명존중』 민음사. 또한, 임재해 1999 「민속신앙에서 발견되는 한국인의 자연관과 현대적 변용」 이란 문헌도 있다.

그러나 몇개 문제가 있다. 이러한 자연관은 자연 환경 문제가 문제로 되어 있는 현대의 입장에서 자의적으로 민속 사상을 끌기 시작해, 자연 보호와 묶고 있는 것이다. 자연 보호에 있어서의 “자연”이란, 서양 개념의 「자연=nature」이다. 그것은 보호인가 파괴인가의 이극론적인 자연이다. 또 논문중에 등장하는 animism 는, 기도를 정점으로 하는 종교 형태의 피라미드의 최하층에 위치하는 것에 주의해야 된다. 「전통적 자연관 =민속 종교 = animism = 자연 보호」, 이러한 도식이 서구적 개념범위를 이용하고, 한국의 자연관으로서 밝혀지고 있는 것이다. 서양 세계와는 완전히 다른 토양으로 전개되어 온 한국의 민속을 서양의 「자연=nature」의 시점에서 봐도, 나오는 것은 서양의 사상에 있어서의 animism 밖에 없다. 이러한 서양적 개념에 묶여 있는 자연관의 연구에, 민속학을 응용하고 싶다. 민속학 연구도 현대 사회의 문제와 연동시키고, 임해질 필요가 있다.

2. 위도와 위도띠뱃놀이에 관해서

2.1 위도의 개관³

연구자는 어촌의 민속문화 연구를 위해, 2005 년 및 2006 년의 2 년간 단속적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했다.

전라북도 부안군 위도면 위도는 위도 35°35' , 경도 126°15' 에 위치해, 한국의 서해안에 떠오르는 전라북도에서 가장 큰 섬이다. 위도에 대한 역사적 기록이 많지 않고 상고 시대에 어느 지역에 속하고 있었는지 알 수 없다. 1478 년에 간행된 동방여지승람을 보면 당시 , 부안군의 영지였던 일이 분명하고, 또 고창 3년의 1866 년에 발행된 부안여지승람을 보면, 위, 하왕등도는 부안군위도면에 편입되고 있다고 기록되고 있다.

고려시대 이후는 부안현에 소속해(1478 년부터 1895 년까지), 조선시대말부터 일본의 식민지 시대까지(1895 또는 1896 부터 1914 까지) 전남에 소속했다. 1895 년에 부안현은 「부안군」이라고 변해, 현감 대신에 군수를 두었다. 이 과정에서 전라좌우도는 전라남북도에 개편되어 위도는 1896 년에 신설된 전남지도군에 편입되었다. 그 앞으로 1910 년에 일본식민지 통치가 시작되며, 1914 년에 행정구역의 개편을 했다. 이것에 의해 지도군이 소멸해 위도는 전남령암군에 편입되었다.그 후, 1963 년에 한국 정부의 행정구역 개편에 의해 다시, 전북 부안군에 편입되어 오늘에 이른다.

2.2 위도띠뱃놀이의 선행 연구 검토

위도띠뱃놀이는 마을의 평안무사, 익사자 공양과 여러가지 제사 내용을 포함하는데, 그 최대의 목적은 풍어 기원이다. 1년간을 배에 신고 모시는 신을 받고, 짚이나 띠로 짠 배를 바다에 띄우고, 풍어를 바란다. 그 제장은 마을 배후의 산, 마을 앞 해안이며, 모시는 신은 용왕님을 시작해 해, 물고기, 산신들이다.

위도띠뱃놀이가 행해지는 대리 마을의 배후에 위치하는 산 「당젓봉」에는

³이변훈 (監修) 1995 「다. 扶安島嶼」 『島嶼誌』 全羅北道內務局社会振興課 pp131-171, 참고.

「원당」으로 불리는 당이 있다. 하효길⁴에 의하면 원당에는 12의 신이 내려 그 중에 명칭이 밝혀지고 있는 10의 신은 이하이다. 좌우의 문수영 대신, 산신님, 신령님, 물애기씨, 원당마누라, 본당마누라, 옥지부인, 애기씨, 장군님이다.

이 하효길의 보고에서 20년 경과한 현재, 본당 마누라, 물애기씨가 빠졌다. 하효길보다 이전에 출판된 「부안향토 문화잡지」⁵를 보면, 「원당에는 7위의 신상이 그려지고 있어」 [심우성 1980:488]라는 보고가 있다. 원당의 신 수를 확정하는 일이 어렵다.

또한 위도띠뱃놀이는 1978년, 전국 제19회민속 예술 경연 대회에 출장해, 최고의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민속학자가 출장을 추천했던 것이 계기라고 말한다. 그때까지 「원당제」로 불리고 있었지만, 「위도띠뱃놀이」란 이름으로 출장했다. 종교색을 진하지 않은 예능적인 「놀이」의 면을 밀어 내기 위해였다고 말한다. 1986년에 국정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된다. 이러한 명칭을 포함한 문화 정책에 대해서는, 특히 박해준 논문⁶이 자세하다.

제사자 에 대해 말하고자 한다. 위도띠뱃놀이, 마지막 세습무녀는 조군례(1917_1995)다. 그녀는 위도의 진리마을에 거주하고 있어, 1984년에 기능 보관 유지자로서 등록되었다. 위도지방은 조군례의 단골관이 형성되어 왔지만, 그녀 사후는 무계 세습이 끊어졌다. 조군례의 사후는 무가출신이 아니지만 조군례무당의 전수를 받은 대리에 거주하는 안길여가 1998년까지 계승했다. 그녀는 무당조교의 입장으로 굿을 실시했지만, 그녀도 1999년 4월에 사망했다. 그 다음은 섬 외의 무당에 계속 의뢰해 왔다. 2006년 이후, 주무를 맡는 것은, 전금순무당 (2006년 현재 82세)이다. 의례는 「위도띠뱃놀이 보존회」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3. 사례와 고찰

지금까지 위도띠뱃놀이의 연구⁷에는 무속에 주목한 연구, 중요무형문화재화에 의한 변화를 추궁한 연구등이 있다. 연구자는 이러한 연구를 근거로 하면서, 본고에서는, 의례의 공간에 나타난 자연과의 관련성에 주목하고자 한다.

3.1. 인간과 공간의 분류

인간은 의례의 세계를 일상의 세계와 다른 세계로 생각해, 구별해

⁴하효길 (河孝吉) 1984 『蠓島의民俗－大里願堂祭篇－』 国立民俗博物館

⁵심우성 (沈雨晟) 1980 「蠓島띠뱃굿」 『扶安郷土文化誌』 邊山文化協會 pp. 488 - 499

⁶박해준 1999 「문화정책과 전통의 재해석」 서울대학교 대학원

⁷황루시 [1989], 임석재 [1993], 이규창 [1994], 김윤희 [1996;2002], 이영금 [2000], 서종원 [2003] 등 연구가 있다.

카테고리화(categorize)한다.⁸ 그 기본 원리는 이원론이고, 분류에는 몇개 종류가 있어, 남·녀, 우·좌, 상·하등이 있다. 위도띠벳놀이 의례에서 어떠한 분류가 있을까.

이 의례는 「대리」의 지리적 범위내에 있는 「대리」, 그 북측 「소리」, 대리 남쪽 「전막리」의 마을의 주민이 대상이다. 일상에 있어 그들은 동질의 위도주민이다. 일년에 한 번 정월이라고 하는 특별한 시간에, 그 중에서 일정한 기준으로 일부의 사람들이<성>에 카테고리화 된다. 무당, 화주, 원화주, 부화장, 독축관이 위도띠벳곳의 의례의 담당자이며, 그들은 도민중에서 생기복덕이 있는 사람들이 담당자로서 선택된다. 그 때, 임신부가 있는 집, 상가 등 부정이 있는 집의 사람이 될 수 없다. 또 여성이나 아이도 될 수 없다.

의례의 세계에 있어 공간도 분류된다. 우선 대리 마을 생활 공간을 동심원으로 분류할 수 있다. 그림에서는 산이 윗쪽, 바다가 하부에 있지만 상하는 가역적이다. 거주역을 중심으로 해, 그 주위에 밭과 무덤이 있다.

위도에서는 무덤이 해안에 향하고 있고, 바다에서 「생산」(풍요)이 원만하게 이루어지도록, 또 거기가 풍수 명당에 해당한다고 한다. 많은 무덤이 길의 옆에 존재했기 때문에 해안 일주 도로를 건설시, 대규모 이장이 이었다.⁹

현재, 무덤의 상당수는 마을 후방의 사유지에 있어, 약간 높은 위치에 있다. 이장전과 현재에 공통점은, 무덤이 집 곁이나 마을 중앙이 아니고, 약간 주룩에 점점이 하고 있는 것이다. 생활 공간은 거주역과 밭이 되어, 산은 의례 이외로 밭을 디딜 것은 없고, 바다는 한정된 사람(남성으로 어부)이 한정된 기간(어업 기간)에 결정할 수 있던 순서로 활동하는 비밀상적 공간이다. 언덕이나 해안은, 산과 바다와 일상적 생활 공간의 사이에 위치하는 경계역이라고 말할 수 있다. 현지의 인식에 있어서의 존경은, 국경과 같이 선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공간적인 것이라고 필자는 생각한다. 현재 대리 마을에게는, 마을의 입구에 대장군이 있지만, 이것들은 해안 일주 도로의 완성 후에 지어진 것이어 낡은 것으로는 없다고 한다. 대리 마을의 입구에 팽나무과 대장군이 옛날은 있어, 거기는 「동쪽 당산」로서 줄을 친 곳에서 「도깨비는 위도의 팽나무까지」라고 한다.¹⁰ 대장군보다 이것이 경계라고 생각할 수 있다.

위도띠벳놀이의 의례에서는 이러한 일상의 공간 분류가, 비밀상인 의례의 공간 분류에도 반영되고 있다. 각각 공간에 있어서의 의례의 담당자를 보면 중심의 생활 공간에서는, 원당곳을 끝낸 무당이 역사자를 낸 집을 돈다. 이것은 동체가 아니고, 개인적 사망자 공양이라고 할 수 있다. 공동체 의례는 생활 공간 안에서 하행 깨지지 않는다. 산기슭과 해안이라고 하는 경계역으로 행해지는 의례는 「주산돌기」, 그 과정에서 행해지는 「당산제」, 주산의 산기슭에서 실시했다고 하는 「줄다리기」가 있어, 바다로 향해 「용왕제」나 「용왕밥 던지기」가 있다. 산에서 행해지는 일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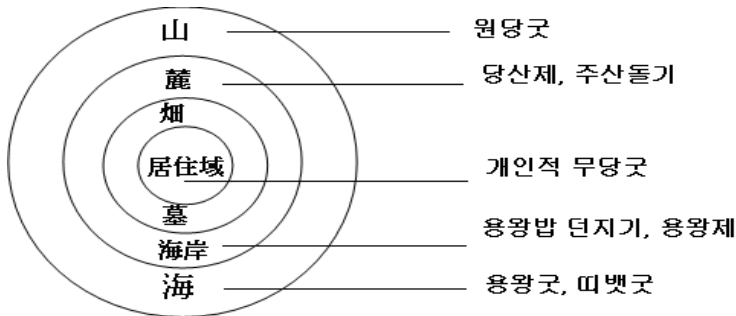
⁸ Edmund Leach 1976 Culture & communication : the logic by which symbols are connected : an introduction to the use of structuralist analysis in social anthropology : Cambridge University Press

⁹ 박해준 1999 「문화정책과 전통의 재해석」 서울대학교 대학원,p.55 참고.

¹⁰ 박해준 1999 「문화정책과 전통의 재해석」 서울대학교 대학원,p.23 참고.

원당곳, 바다에서 행해지는 곳은 용왕곳이다. 중앙의 거주 공간에 있는 것은 부정이 있는 마을의 남성, 여성, 어린이들이다. 경계역을 둘러싼 주산돌기는, 농악대가 주도한다. 산이나 바다가 궁극적으로 지향되는 쿠를 담당하는 사람이 무당이다. 위도띠뱃놀이하는 의례에 있어서의 공간의 분류와 인간의 분류와 겹친다.

圖 : 마을의 공간분류



3.2 「돌기」의 의례

이제까지 위도띠뱃놀이하는 원당곳과 용왕곳이, 민속학연구의 중심에 있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세습무의 계승이 중단된 적도 있어 무당의 정통성이나 능력, 의례의 축소화나 형해화가 지적되어 왔다. 그러한 연구자의 일종의 낙담이 무속연구에서 볼 수 있지만, 연구자는 무속 뿐만이 아니라 동체로서의 위도띠뱃놀이의 의례를 고찰하는 것이, 이 사회의 세계관이 밝혀지는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한다. 지금까지 무당의 곳 이외의 의례는 간과되어 보고도 불충분했다. 왜냐하면 「주산돌기」 「줄다리기」, 이러한 의례는 위도 뿐만이 아니라 전역으로 행해지고 있던 정월이 있어 접한 행사였기 때문이다. 민속학자들의 붓은 「대리 마을에 줄다리기가 있다。」 그것으로 멈추어 또 이상 고찰을 하지 않았다. 그러나 흔히 있는 의례이기 때문에 더욱 외부로부터 「교정」(문화재 지정의 영향)을 받는 일 없이 그 사회의 세계관을 반영시키고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거기서 본고에서는, 농악대를 중심으로 한 「돌기」의 의례에 주목하고자 한다. 「주산돌기」의 목적은 「마을의 평안무사이기 때문에」라고 하지만, 행위의 하나 하나의 의미가 명확하게 인식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옛부터 정월은 이런 일을 한다」라는 소리가 마을의 주민의 심정에 가장 가까울 것이다. 「주산돌기」는 이름대로, 주산의 산기슭에서 에용줄을 어깨에 메어, 빙빙 도는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 「돌기」가 있다. 그것이 위도띠뱃놀이 전체의 「돌기」다. 이 대소의 「돌기」를 고찰하고자 한다. 「에용노래」를 노래하면서 「에용줄 주산돌기」를 한다. 「주산돌기를 실시해 화목과 단결을 굳히고 있다」라고 하는 사진도 전승관에 있다. 이 주산돌기는 화목과 단결, 마을의 평안무사를 위해서 실시한다. 「에용노래」의 의미를 깊게 고찰하고자 한다. 「에용노래」¹¹란 다음과 같은 노래이다.

¹¹ 하효길 (河孝吉) 1984 『蝸島の民俗—大里願堂祭篇—』 国立民俗博物館, 2004 「위도

에용에용 에이예요/노자 노자 젊어서 노자 (에용에용 에이예요) /간다 간다
 내가두나 간다 (에용에용 에이예요) /노자 노잔다 저리 젊어서 노세 (에용에용
 에이예요) /달도 밝다네 달이도나 밝다 (에용에용 에이예요) /오늘 하루를 기분 좋게
 노세 (에용에용 에이예요) /놀다 노다가 못노가면은 내년에 오아 (에용에용에용
 에용에이예요)

믿어보자네 믿어보고서노세 (에용 에용 에~용 에~용) /저기저쪽네 뛰는 조기를
 잡아 (에용 에용 에~용 에~용) /청어를 잡잔다 이네뛰는 청어를 잡세 (에용 에용
 에~용 에~용) /칠산바다에 푸른 조기를 잡자 (에용 에용 에~용 에~용) /이
 조기를 잡아놓고서 노세 (에용 에용 에~용 에~용)

청어로세 이네 청어가 왔다 (에용 에용 에~용 에~용) /청천 하늘에 자그잔별도
 많다 (에용 에용 에~용 에~용) /달도밝다 달이달도 나 밝다 (에용 에용 에~용
 에~용) /노다가잔다 이네 자리서 노자 (에용 에용 에~용 에~용) /떨치 잡잔다
 이네 떨치도 잡잔다 (에용 에용 에~용 에~용) /간다간다네 이네 떨치가
 다간다 (에용 에용 에~용 에~용) /너도간다면 우리네 들도 따러 간다 (에용 에용
 에~용 에~용) /노자 좋다네 이네 마당에 노세 (에용 에용 에~용 에~용) /

빌어 보잔다 빌어보세 (에용 에용 에~용 에~용) /용왕궁님네 빌어보세 (에용 에용
 에~용 에~용) /새로 보세 새로나 보세 에용줄을 새라 보세 (에용 에용 에~용
 에~용) /가르로 간단다 (에용 에용 에~용 에~용) /돌아보세 돌아를 보세 에용줄을
 돌아보세 (에용 에용 에~용 에~용)

「에용」은 구령이다. 이 노래는 뱃노래이며,조기등 물고기가 등장한다.

「에용노래」의 선창은 남성이 실시하는 것이며 「젊어서 노자」라는 불평은 이성을
 유혹하는 내용이다. 웅강과 자강을 연결시켜 행해지는 「줄다리기」는 남녀 사이의
 놀이를 모방한 것으로 풍요와 다산을 상징하고 있어 [李昌植 2006 : 29-30] , 에용줄로
 도는 일도 이러한 의미가 있을 것이다.

에용 에용 에에용 (에용 에용 에에용) /노세 노세 놀아를 보세 줄을 갖고 놀아를
 보세 (에용 에용 에에용) /에용 에용 에에용 (에용 에용 에에용) /빌어보세 받어를
 보세 고기 잡이를 빌어를 보세 (에용 에용 에에용) /에용 에용 에에용 (에용 에용
 에에용) /빌어 보세 빌어를 보세 용왕님전 빌어를 보세 (에용 에용 에에용)

에용 에용 에에용 (에용 에용 에에용) /조기 잡자 조기를 잡자 대장앞 바다 조기

대리 원당제 무가』 『풍어제 무가』 17 - 71 民俗院 참고.

잡자 (에용 에용 에에용) /조기 잡자 조기를 잡자 (에용 에용 에에용) /에용 에용 에에용 (에용 에용 에에용) /청어 잡세 청어를 잡아 변산 위도 청어를 잡세 (에용 에용 에에용) /병어 잡세 병어를 잡세 위도 변산 병어 잡세 (에용 에용 에에용) /에용 에용 에에용 (에용 에용 에에용) /청어 푸세 청어 푸세 위도 군산에 청어 푸세 (에용 에용 에에용) /멸치 잡세 멸치 잡세 대장앞바다 멸치 잡세 (에용 에용 에에용)

에용 에용 에에용 (에용 에용 에에용) /돌아보세 돌아보세 에용줄 잡고 돌아보세 (에용 에용 에에용) /에용 에용 에에용 (에용 에용 에에용) /세려보세 세려보세 에용줄을 세려보세 (에용 에용 에에용) /에용 에용 에에용 (에용 에용 에에용) /빌어보세 빌어를 보세 용왕님전에 빌어보세 (에용 에용 에에용) /에용 에용 에에용 (에용 에용 에에용) /천청하늘에 잔별도 많고 (에용 에용 에에용) /에용 에용 에에용 (에용 에용 에에용)

간—간다네 간다네 내가들아들 간다네 (에용 에용 에에용) /에용 에용 에에용 (에용 에용 에에용) /갈치 잡세 갈치를 잡세 대장앞바다 갈치잡세 (에용 에용 에에용) /에용 에용 에에용 (에용 에용 에에용)

빌어보세 빌어보세 (에용 에용 에에용) /원당에게 빌어보세 (에용 에용 에에용)
 조기잡세 조기잡세 (에용 에용 에에용) /칠산앞바다 조기잡세 (에용 에용 에에용)
 갈치 잡세 갈치 잡세 (에용 에용 에에용) /왕등바다에 갈치잡세 (에용 에용 에에용)
 청어썬세 청어썬세 (에용 에용 에에용) /위도군산 청어썬세 (에용 에용 에에용)
 주산돌세 주산돌세 (에용 에용 에에용) /우리마을 주산돌세 (에용 에용 에에용)
 놀아보세 놀아보세 (에용 에용 에에용) /홍청거리고 놀아보세 (에용 에용 에에용)
 조기잡세 조기잡세 (에용 에용 에에용) /황금같은 조기잡세 (에용 에용 에에용)
 황금일세 황금일세 (에용 에용 에에용) /조기 빛이 황금일세 (에용 에용 에에용)
 만선일세 만선일세 (에용 에용 에에용) /조기실어 만선일세 (에용 에용 에에용)

「에용노래」가 「돌기」 행위와 함께 불러져 남녀의 놀이와 풍어 기원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원」은 무한대의 선과 면을 끌어들이는 완전함을 의미한다. 「주산돌기」은 「화동」을 어깨에 올려 놓은 남자가 양단에 서, 에용줄이 빙빙 돌는다. 화동은 페어(pair)를 상징하고 있다. 그것은 하늘에 태양과 달이기도 하고, 「줄」에 관한 의례는 웅(雄)·자(雌)의 줄이기도 한다. 태양과 달, 남자와 여자, 이 둘이 빙빙 도는 것이 생명과 풍요의 발생을 의미한다. 태양과 달, 남자와 여자, 어느 쪽이 빠져도 불완전하고 양자가 모여 완전한 순환이 유지되는 것이다.

큰 「돌기」는 위도띠뱃놀이 전체를 통하고, 농요대가 마을 외측을 일주 하고 있는 것이다. 그 행정으로 농요대가 엔이 되어 풍물을 격렬하게 울리거나 제관이 밥을 바치거나 하는 행위를 한다.데리 마을의 동심원 모델의 공간 분류를 제시했지만, 그것이

현저하게 나타나는 것이 「주산돌기」다.

지리적 공간을 주민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주산돌기」에서 고찰하고자 한다. 이것이 눈에 보이는 현상에서 그 하층(下層)에 있는 구조를 분명히 하는 것이어, 소슈르¹² (Ferdinand de Saussure)의 기호론적 방법이 유효하다. 마을의 공간에 존재해 의례에 대해서 중요시되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 이것들이 의례의 세계에 있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생각하고자 한다.

「주산돌기」의 순서를 보면, 마을의 주위를 걷고 있다. 의례를 한 지점을 보면, 표적은 「나무」와 「돌」과 「바위」이며, 그것들은 거주역을 둘러싸서 배치된다. 이 「나무」와 「돌」, 「바위」를 둘러싸는 것, 그것은 즉 마을의 경계역을 돌게 된다. 마을의 사람들에게 경계선을 물으면 대답은 다양하고, 경계는 「선」으로 명확하게 인식되는 것은 아니고 상징하는 자연물을 「점」으로 완만한 공간으로서 인식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왜, 자연물(목, 돌, 바위)을 둘러싸는 것인가. 사람들이 그것들을 다른 사물과는 구별해 특별한 의미를 부여해, 공간안에 평가해 있음에 틀림없다. 「도우야마」는 할머니당산, 할아버지 당산등 남녀에게 이분(二分)되기도 하는데, 대리 마을의 당산은 「동쪽 당산」 「서쪽 당산」라고 불러 동서로 이분되어 서는 나무이다.

「나무」¹³는 한반도에서는 신성한 것이며, 특별한 의미를 가진다. 조선 신화 세계에 있어서 나무는 신이 강림 하는 장소이며, 하늘과 땅을 잇는 길이 되는 것이다. 「적은당」은 「돌」 이어, 「용왕바위」는 「바위」다.

그 돌이나 바위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민속 신앙에 대해 이것들은, 토지의 풍요, 다산이나 번식, 순조로운 기후, 국가의 전승이나 평화를 보장하는 것으로서 신앙을 받는다. 신화에 있어서의 돌이나 바위는 영험을 나타내는 존재이며, 신격화 된 인물의 탄생을 가져오는 생명력을 상징한다.¹⁴ 나무나 돌이나 바위는 단순한 자연물이 아니고, 풍요나 생명력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들을 매개로서 사람은 의례의 시간과 공간안에서 신과 통할 수 있다.

대보름, 이것이 원(圓)¹⁵이다. 원은 선, 면, 모퉁이가 궁극적으로 도달하는 이상형이며, 자연의 이법이나 역사의 도리, 인간의 운명을 상징하는 것이기도 하다. 위도띠뱃놀이에서 원은, 물질로 나타내지는 것이 아니라 「돌기」라고 하는 신체적 행위로 동적으로 표현된다. 동적 원은, 원이 가지는 순환성을 나타내고 있다. 원은 시점이나 종점도 상하 좌우도 없게 균등으로 균질이다. 위도띠뱃놀이의 원은 정적이지 않고, 교대로 하늘에 가는 달과 같이, 간만을 반복하는 물때와 같이 순환한다. 순환하는 것에 힘이 있다. 그 때문에 사람도 도는 것이다. 위도띠뱃놀이에 나타나는 이 원의 순환성이야말로 위도의 세계의 질서이라고 말할 수 있다.

연구자는 「돌기」의례로서 주산 돌기에 주목했다. 2006년, 주산돌기는 행해졌다.

¹² フェルディナン・ド・ソシュール, 小林英夫(訳)『一般言語学講義』1972、岩波書店

¹³ 李符永 2006 「나무」伊藤亜人(監訳)『韓国文化シンボル事典』平凡社 pp.225-226

¹⁴ 金烈圭 2006 「돌,바위」伊藤亜人(監訳)『韓国文化シンボル事典』平凡社 pp.60 - 63

¹⁵ 金烈圭 2006 「원」伊藤亜人(監訳)『韓国文化シンボル事典』平凡社 pp.132 - 133

의례의 형식의 변화로서는 대리 마을의 서쪽 당산에서 실시하지 않고, 농악대가 잠깐 등글어져 연주한 것만으로 있던 일과 대리의 용왕바위를 그냥 지나침 하고, 전막리 마을 후방의 용왕바위로 용왕제를 실시한 일, 전막리의 우물에서 연주했던 점이다. 그러나 이러한 지점의 변화는 있지만, 농악대가 악기를 쳐 올리면서, 마을의 경계역을 돌아 돌아온다고 하는 행위에는 변화가 없다. 카메라맨들이나 연구자들이 무당굿을 주목하고, 주산돌기를 주목을 하지 않았다. 의례의 실천자들은, 카메라맨을 의식해 의례를 실시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카메라맨들 시선에 관계 없이, 주산을 도는 것에 의미를 찾아내고 있는 것이다.

마을을 중심으로 해, 그 외에 퍼지는 이계로부터 연 1 회의 정월에 복이 온다. 이계는 일상, 등산이 금지되고 있는 당젓봉이다. 밖의 세계의 풍요나 생명력에 접하기 위해서 경계를 도는 것이다. 바다도 산과 같은 이계이다. 사람들이 띠배를 이세계에서 저쪽까지 보낸다. 순환하는 세계(자연)에서 복을 받고 대신에 액을 낸다. 자연의 무한의 순환성을 전제로, 이 순환에 따른 행위로 인간은 그 힘을 신년에 받는다. 이것에 위도의 민속 사회의 자연관을 볼 수 있다.

4.마치는 말 : 민속과 환경 문제

본고의 목적은 위도를 대상으로, 그 민속 사회의 자연관을 고찰하는 것이었다. 주산돌기는 동제로서 자주 해 온 행위다. 연구자는 이러한 민속이야말로, 한국의 자연관을 잘 나타내고 있다고 생각한다. 확실히, 위도띠벳놀이를 보면, 어업자의 감소, 세습무의 단절이나, 외부 관객이나 카메라맨의 증가등, 의례를 생략화·축소화 시키고 있다. 변화한 면도 있지만, 주산돌기등, 공간의 사용법은 크게 변화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된다.

자연의 섭리와 순응한 의례의 자연관을, 기독교 문화에 있어서의 미숙한 animism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위험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환경 문제로 논의되는 보호인가 파괴인가라는 선택도 이러한 자연관과 호환없는 것이다. 위도의 사회는 결코 자연을 파괴하는 사회는 아니다. 동시에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사회도 아니다. 존재하는 자연의 섭리에 따라서 사는 것이 위도의 사회이다.

그것은 자연속에서 생업을 영위하는 사회에 공통된 것일지도 모른다. 핵폐기물 처분장의 건설을 시작해 이러한 시설의 건설 예정지는 지방 지역인 것이 적지 않다. 그것이 바로 민속학자가 조사해 온 지역이다. 위도와 같이, 개발과 정체, 자연 보호와 자연파괴의 양자택일을 재촉당한다. 그 때, 민속이 자연 보호의 언설로서 이용되어 민속 사회는 자연 보호적인 것을 강요 당한다. 개발이라고 하는 결단을 내면, 돈의 땅자이라고 환경보호 단체로부터 비판을 받는다. 연구자는 이러한 상황에, 민속학 연구 성과를 이용하고, 서로 이해에 연결할 수 없을까 생각한다.

민속 사회는 확실히, 자연과 함께 살아오기 때문에 환경보호적이라고 보일 수도 있다. 양자에게는 친화성이 있다. 그러나 자연 보호와 개발이라고 하는 이원론에 대해서는, 완전히 다른 성질을 가진다고 연구자는 생각한다. 본고는 위도의 민속 축제가 자연과 순응하고 있는 것을 고찰했다.

참고 문헌

- 김윌덕 1996 「韓國마을굿에 대한 民族演劇學的研究—‘蝟島 띠뱃굿’의 경우를 중심으로」 全北大學校大學院 國語國文學科碩士學位論文
——2002 「위도띠뱃굿의 변화과정과축제적 재구성」 全北大學校全羅文化研究所
고길섭 2004 「부안 끝나지 않은 노래」 엘피
文化財研究所芸能民俗研究室 (編輯) 1982 『韓國民俗綜合調查報告書』 第十三冊 文化広報部 文化財管理局
박해준 1999 「문화정책과 전통의 재해석」 서울대학교 대학원
朴桂弘 1983 『韓國民俗學概論』 蜚雪出版社
심우성 (沈雨晟) 1980 「蝟島띠뱃굿」 『扶安郷土文化誌』 邊山文化協會 pp. 488 - 499
서종원 2003 「위도띠뱃굿에서 보이는 띠배의 의미고찰」 『생활문화연구』 國立民俗博物館
이규창 (李圭昌) 1994 「蝟島띠뱃놀이」 『全羅民俗論攷』 集文堂
이영금 2000. 2. 22 「전북지역 무당굿 연구」 전북대학교 대학원
임석재 (任哲宰) · 김수남 (金秀男) 1993 『蝟島띠뱃굿』 說話堂
이변훈 (監修) 1995 「다. 扶安島嶼」 『島嶼誌』 全羅北道內務局社会振興課 pp131-171
奎章閣資料叢書地理志篇 2004 「扶安縣邑誌」 『全羅道邑誌 十』 서울大學校奎章閣
임재해 1999 「민속신안에서 발견되는 한국인의 자연관과 현대적 변용」 『민속학연구』 제 6 호 국립민속박물관 pp. 105-149
梁在淵 (共編) 1971 『韓國民俗綜合調查報告書 (全羅北道篇)』 大韓公論社
全北郷土文化研究會 (編) 1991 「第 4 篇 第 1 章 行政 1 3. 蝟島面」 『扶安郡誌』 309 - 310 「第 9 篇 第 1 章 民間信仰」 『扶安郡誌』 725 - 744
진교훈 (秦敎勳) 1998 「제 8 장 한국인의 전통적 자연관의 현대적 의의」 『환경윤리 동서양의 자연보전과 생명존중』 민응사
하효길 (河孝吉) 1984 『蝟島の民俗—大里願堂祭篇—』 國立民俗博物館
1998 「위도띠뱃놀이」 『한국의 풍어제』 101-127 대원사
2004 「위도 대리 원당제 무가」 『풍어제 무가』 17 - 71 民俗院
해양수산부 (海洋水産部) 2002 『한국의 해양문화사 —서남해역 (下)—』 경인문화사
황루시 (黃縷詩) · 김수남 (金秀男) 1989 「위도띠뱃굿」 『팔도 굿』 대원사 pp. 48-51
- ## 외국어 문헌
- 金烈圭 2006 「돌, 바위」 伊藤亜人 (監訳) 『韓國文化シンボル事典』 平凡社 pp. 60 - 63
——2006 「원」 伊藤亜人 (監訳) 『韓國文化シンボル事典』 平凡社 pp. 132 - 133
李昌植 2006 「놀이」 伊藤亜人 (監訳) 『韓國文化シンボル事典』 平凡社 pp. 29 - 30
李符永 2006 「나무」 伊藤亜人 (監訳) 『韓國文化シンボル事典』 平凡社 pp. 225-226
Edmund Leach 1976 *Culture & communication : the logic by which symbols are connected : an introduction to the use of structuralist analysis in social anthropology* : Cambridge University Press
フェルディナン・ド・ソシュール, 1972 小林英夫 (訳) 『一般言語学講義』 岩波書店